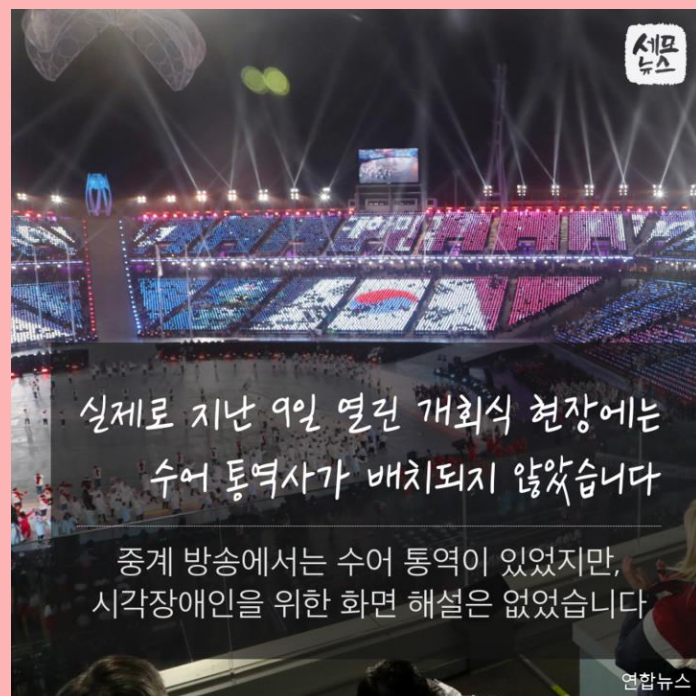




#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막식, “소수자를 배제한 채 성장한 한국의 모습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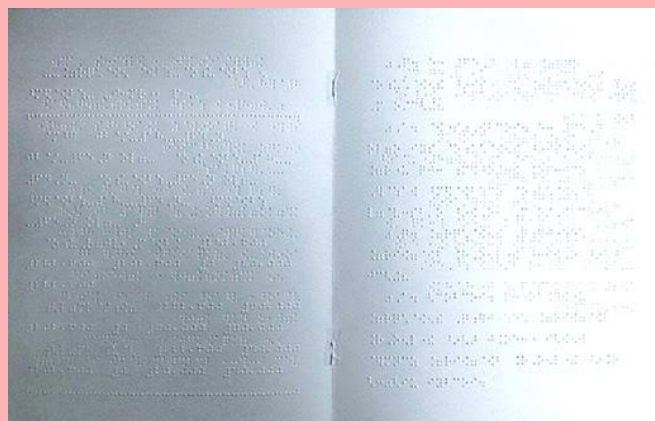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해 시청각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개회식 방송 중 청각 및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하지 않은 지상파 방송 3사와 정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위해 자막 및 수어통역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방송사가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행사를 중계할 때 자막 수어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가 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열리는 10일 동안 국내 지상파 3사가 패럴림픽에 편성한 시간은 각각 17~18시간 수준이다. 이마저도 개회식 폐회식, 늦은 밤 편성되는 하이라이트 녹화중계 분량을 모두 합친 것이었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적인 행사에서조차 장애인의 인권은 존중 받지 못하고 있다.**



# 필수가 아닌 선택?

## 즐거운 행사장 속 장애인 편의 시설을 보신 적 있나요?



점자 안내서



음성 해설



수화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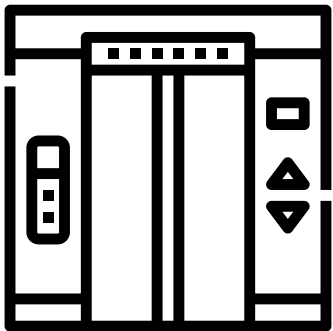
장애인 편의시설은 일상 속에서 조차 자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필요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이라고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행사장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편의시설이 있을까요?

“2016년 11개 지역 및 중앙정부 행사 총 69건 중 점자 및 음성 변환용코드가 삽입된 대체자료 제공 수는 단 6건(8.7%)에 불과했다.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제공 의무가 있는 기념일(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현충일), 국경일(제헌절, 광복절) 등 행사를 한정시켜보면 총 47건. 반면, 대체자료 제공 수는 5건(10.6%)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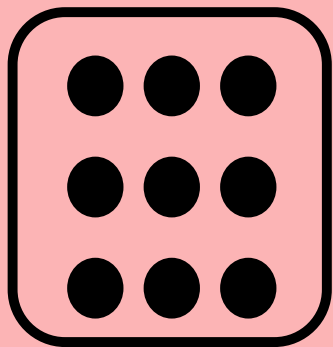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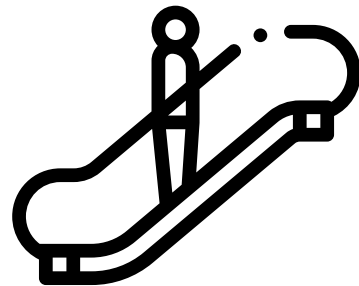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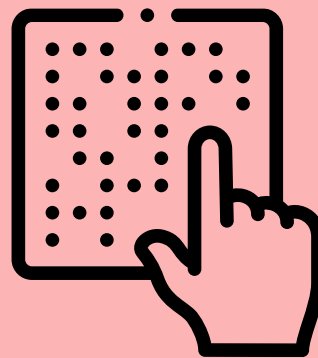
# 어떤 행사장이 모두가 행복한 행사장일까요?



고층에 위치한 행사장이나,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행사장이라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신체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의 기구 설치!



시각장애인의 거동을 위한 **점자** 블럭, 박물관과 전시회 같은 행사장에서는 내용 안내를 위한 **점자 안내판**과 **음성해설**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휠체어 대여소**와 농아를 위한 **수화 통역**,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도우미**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 행사를 즐기는 우리의 마음가짐(🌸'ㅍ'🌸)



모두가 즐거운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행사를 즐겨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불쌍해 하면 안돼요! 그들의 특징을 동정하지 마세요!”

